

물멍존·벨리곰...화순으로 봄소풍 가자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에서 운영될 봄꽃 나룻배. <화순군 제공>

19~28일 화순고인돌봄꽃축제 '몽환의 숲' '봄꽃 나룻배' 등 이색 공간 조성 '이색 경험' 선사

화순 고인돌 봄꽃축제가 19일 개막하는 가운데 '몽환의 숲' 등 이색공간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자연경관과 봄꽃 나룻배를 비롯한 아름다운 포토 조형물의 콜라보로 이색 경험을 선사할 전망이다.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는 지난해 봄, 가을에 이어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일대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서 열리는 세번째 축제다.

28일까지 '화순으로 봄소풍 가자'를 주제로 열리는 축제는 가볍게 떠나는 피크닉을 기본 콘셉트로 잡았다.

지난해 호평을 받았던 화순미림에는 셋노란 유채꽃을 배경으로 핑크빛 초대형 벨리곰 조형물을

설치해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핫 포토스팟을 조성할 예정이다.

물멍존에는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며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빈백, 피크닉 매트를 준비했고, 물멍존 끝 언덕에 위치한 몽환의 숲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자연경관과 봄꽃 나룻배를 비롯한 아름다운 포토 조형물의 콜라보로 조성해 관광객들에게 이색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보존제를 넘어 춘양 방면으로 내려가면 넓게 펼쳐진 잔디광장에 봄별정원이 나타난다. 젊은 감각을 활용한 팝업 스토어 형식의 야외 카페를 중심으로 휴식존과 포토존을 조성해 축제장을 찾은 가족, 연인들에게 특별한 안식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이 세번째 개최인 만큼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했던 점은 이어가도록 정성껏 준비했다"며 "시끌시끌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라도 화순에 소풍 와서 소중한 마음의 안식을 즐기고 추억거리도 한 가득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성군 복일면 청년회

어르신 240명 모시고 효도관광

장성군 복일면 고령 주민 240여 명이 최근 고흥·순천으로 '효도 관광'을 다녀왔다.

복일면 청년회는 5년 만에 '어르신 효도 관광'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여행 경비는 모두 복일면 청년회가 부담했다. 이번 여행에서 어르신들은 고흥 소록도와 순천 낙안읍성 등을 돌아봤다.

지난 2012년 창립한 복일면 청년회는 2014년 처음 효도 관광을 시작해 2년에 한 번씩 여행을 진행했다.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사태로 효도 관광을 중단했다가 5년 만에 재개했다.

이우태 복일면 청년회 회장은 "오랜만에 마련한 효도 관광인 만큼, 기존 70세 이상 나이 제한 기준을 완화해 역대 가장 많은 어르신을 모셨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김한중 장성군수와 복일면 어르신들이 효도 관광을 가기 전에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나주시, 18년 만에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처리 비용 현실화”

7월부터 20 l 장당 250원→380원

나주시가 생활 쓰레기 처리 비용 현실화를 위해 18년 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오는 7월부터 생활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리터(l) 기준 가격을 한 장당 250원에서 380원으로 130원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시는 그동안 어려워진 서민 생활과 물가 상승률 억제 등을 이유로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을 18년간 동결해 왔으나, 최근 계속해서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고 처리비용도 상승해 쓰레기 줄이기 및 처리 비용 현실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하기로 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생활 쓰레기 처리 비용 주민부담률은 지난 2022년 말 기준 10%로 전국 지자체 평균(30%)에 크게 못 미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생활 쓰레기 수거와 매립장 운영에 있어 막대한 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 내 다른 4개 시의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과 비교했을 경우 4개 시 평균 가격이 733.6원인데 반해 나주시는 52% 수준인 381.6원에 불과하며, 이번 인상안이 통과되면 평균 가격은 561.6원으로 오른다.

나주시는 최근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통해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 인상안을 결정하고 오는 17일 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행정절차와 의회 의결, 시민 홍보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인상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장당 판매 가격은 5 l 는 80원에서 110원, 10 l 는 130원에서 200원, 20 l 는 250원에서 380원, 30 l 는 360원에서 510원, 50 l 는 570원에서 900원, 75 l 는 900원에서 1270원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매년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 인상을 논의하며 오랫동안 동결해 왔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분리배출과 1회용품 사용 절제 등을 통해 쓰레기를 줄이는데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원(오른쪽) 강진군수가 최용천 문화재청장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 국비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강진군수 문화재청 찾아 병영성 활용 국비 요청

복원 사업·청자요지 공원화 건의

강진군 강진군수가 문화재청을 찾아 강진 전라 병영성 활용 활성화를 건의했다.

강진군은 강 군수가 지난 8일 최용천 문화재청장을 찾아 강진 문화재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65억원 반영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강 군수는 현안 사업인 '강진 전라병영성 복원사업 조기 완공'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하나로 진행하고 있는 '고려청자요지 공원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강진 전라병영성 보수정비사업은 26년째 추진하고 있다.

병영성의 대형 함정 유구(遺構)는 국내 최초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해자(壕子·못)는 발굴된 후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강 군수는 전라병영성의 활용도를 높이는 인근 한골목 옛담장(국가지정등록문화재), 병영성 흥

교(전남도유형문화재), 하멜기념관 등의 문화자원을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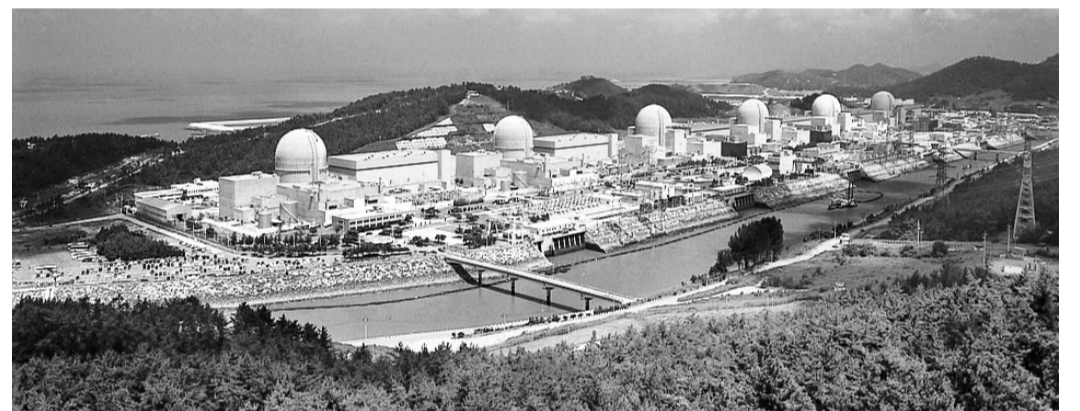
강진군은 올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전남에서 가장 많은 국·도비 79억원을 확보했다.

연초부터 중앙부처·전남도 등 외부 기관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올해 1분기 동안 21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를 통해 확보한 국·도비 등은 모두 784억원에 달한다.

최용천 문화재청장은 강진군의 건의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강진군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현재 진행형'으로 함께 즐길 수 있는 고유한 행사와 축제를 통해 강진의 발전을 이룩하고자 한다"며 "강진의 소중한 문화 자원들을 소중히 가꾸고 지켜 내일의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한빛원자력본부 전경.

함평군 한빛원전 1·2호기 계속 운전 주민 공람

함평군이 한빛원전 1·2호기의 계속 운전과 관련한 주민 공람을 다음 달 3일까지 35일 동안 실시한다.

한빛원전 1호기의 운영허가 기간은 내년 12월 22일, 2호기는 2026년 9월 11일 각각 만료된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오는 2027년 6월까지 한빛 1·2호기의 10년 연장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계속 운전으로 인한 주민 피폭선량 등 주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방사선 환경에 대한 안전성 입증 문서인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RER) 초안을 마련했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함평군정 안전관리과와 손불면사무소, 신광면사무소, 해보면사무소, 월야면사무소,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에 서로 볼 수 있다.

의견수렴 대상 주민은 손불, 신광, 해보, 월야 4개면 거주 주민이다. 방사선 환경 영향과 그 감소방안 등에 관한 주민 의견이 있으면 공람 장소에 비치된 주민 의견제출서 양식에 작성해 내면 된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